

2025년 5월 13일(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편사니즘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보도 요청
----------------------------	---------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전국 화상 출범식 성료...
접경지와 주요 도시 잇는 유세단 “평화·안보 중요성 알렸다”

발신 : 황인권 국방안보위원장 담당 : 유도진 선임부위원장 (010-6260-7777)	수신 : 각 언론사/미디어 기자님
--	--------------------

1. 먼저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과 각 언론사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가 5월 13일(화) 오후 2시에 ‘국방안보위원회 화상 출범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편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년·진선미 국회의원)’ 산하 국방안보위원회가 2025년 5월 13일(화)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전국 18개 지역을 화상으로 연결해 출범식을 진행했다. 국회 의원회관 2층 6간담회실을 주 무대로 삼았으며, 파주·연천·철원·화천 등 접경지역과 김포·서울·안동·대구·대전·담양·제주 등 주요 도시 전역에 위원을 배치해 실시간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화상 출범식은 앞서 공개된 ‘전국 국방안보위원회 화상 출범식 계획’에 따라 철저히 준비되었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모으고, 국내외 안보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황인권 국방안보위원장(예비역 육군대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진선미·김병주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상으로는 김태년 의원이 연결됐으며, 부승찬 의원은 사전 응원 영상을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선거운동 시작부터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화를 지켜온 노력에 감사하자”라는 공동 메시지를 공유했고, 민주당 정부가 강조해온 ‘평화가 곧 경제발전’이라는 기조를 거듭 되새겼다.



▲ 안규백 의원, 진선미 의원, 김병주 의원, 황인권 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황인권 위원장은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그들의 소임이 국민 일상을 지켜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방위비 투자를 지속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 강화와 평화 추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파주·연천·철원·화천·양양 등 접경지역에 투입된 유세단은 상황본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지역의 여론과 생동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유세단 측 후문도 이어졌다.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이 같은 현장 소식이 즉시 공유돼, 전국이 하나로 묶이는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 화상회의간 key note 발언을 하고 있는 안규백 국회의원

행사 주최를 총괄한 김대호 선임부위원장은 “이번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사전에 웨비나 매뉴얼을 배포하고, 5월 12일에는 화상 리허설을 진행해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했다”며 “그 결과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각 지역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 국방안보위원들은 수렴된 민원 사항을 향후 선거 활동과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현안을 중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안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의 전국 화상 출범식은 “평화와 안보가 결국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국방안보위원회 유도진 선임부위원장은 “오늘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선거운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중앙이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을 적극 도입해 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전했다.

(1,510자)

--

3. 위 홍보 자료 관련 질문이 있으신 언론사/기자님께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유도진: 010-6260-7777).

4. 기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